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38
JULY 31 2020

발간년월 2020년 7월 31일 (통권 제13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미, 러시아-유럽 가스관 건설 사업 기업에 제재 경고
- 무르만스크 항만, 우회 철도 개통으로 화물 선적 재개
- 러시아 수산기업가 협회장, 극동 지역 GRDP의 12%는 어업
- 러노베크, 북극 항로 이용한 아시아행 천연가스 운송에 박차

전문가 칼럼

- 극동 러시아 농업여건과 우리 농업 기업 진출 시사점

주요 통계

- 2020년 4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미, 러시아-유럽 가스관 건설사업 기업에 제재 경고

■ 유럽 내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 싸움 치열해질 전망이다¹⁾

-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드 스트림(Nord Stream) 2’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15일 “러시아의 가스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를 밝혔음
- 이어 러시아의 가스관 건설 사업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유럽의 의존을 악용하기 위한 크렘린의 핵심 도구”라면서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미국은 본 제재를 위해 2017년 북한·이란·러시아 등 적대 관계에 있는 3국을 제재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적대 세력 제재 대응법(CAATSA)’의 수정 의사까지 밝혔음

■ 천연가스를 앞세워 유럽에서 힘을 키우려는 러시아와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유럽국가 간 이해관계가 일치²⁾

-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주도하는 노드 스트림 2사업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1225km의 가스관 건설 사업임. 이 사업은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러시아는 이 가스관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독일 등 서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게 됨
- 탈 원전·탈 석탄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인 독일 입장에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LNG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수출 규모를 지금의 2배로 늘릴 수 있음
- 이 사업에는 개발을 주도하는 가즈프롬 외에도 독일 유니퍼와 빈터샬, 프랑스 엔지, 오스트리아 OMV, 네덜란드 로얄더치셸 등 5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은 노드 스트림 2가 완공되면 유럽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³⁾

- 미국의 이러한 압박 이면에는 자국 천연가스를 유럽에 판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옴. 유럽은 천연가스의 약 70%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35.5%가 러시아산임. 여기에 노드 스트림 2까지 완공되면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노드 스트림 2는 건설이 일시 중단된 상태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스위스 기업이 공사를 멈추고 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음
- 이번 가스관 건설의 최대 수혜국인 독일은 미국의 이러한 제재에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추가 제재가 있을 시 유럽연합과 연합해 보복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밝힘

그림. 노드 스트림 2 가스관



자료: Gazprom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us-toughens-stance-against-2-russian-gas-pipelines-to-europe/2020/07/15/e932ebcc-c6aa-11ea-a825-8722004e4150_story.html (검색일: 2020년 7월 23일)

무르만스크 항만, 우회 철도 개통으로 화물 선적 재개

■ 우회 철도 개통으로 무르만스크 항의 화물 선적 작업이 재개되었음

- 러시아 언론사인 타스(TASS)에 따르면, 콜라(Kola)강 철교 붕괴로 무르만스크 항의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중단되었음
- 현재 대체 우회 철도 건설이 완료되었고, 철도 통신이 복구되었음. 이에 따라 무르만스크 항은 철도 운영과 관련된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재개함
- 첫 선박은 광석과 석탄을 적재하기 위한 케이프사이즈(Capesize)급 선박으로 7월초에 무르만스크 항에 입항함. 케이프사이즈급 선박은 대형선박으로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무르만스크 항만만 화물 취급이 가능함

그림. 무르만스크 항만



자료: <http://www.morvesti.ru/news/1679/84272/>

■ 우회 루트 개통으로 러시아 철도청과 관련 기업 간 화물의 선적 및 환적 계획을 새로 수립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우회 루트 개통으로 러시아철도청은 화주기업 포싸그로(Phosagro)사, 아크론(Akron)사, 그리고 유로힘(Eurochem)사와 함께 우회 철도를 통해 광물비료 및 인회석 농축산물을 무르만스크 항으로 운송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
- 이 협력체제는 2020년 예정된 무르만스크 항을 통한 철광석, 인회석 농축산물 및 광물비료 등의 선적 및 환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임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 a) <http://www.morvesti.ru/news/1679/84272/> (검색일: 2020년 7월 28일)
- b)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torgovyy_port_murmanska_v_nachale_ilyulya_vstretit_pervye_gruzovye_suda_posle_prostoya.html (검색일: 2020년 6월 23일)

러시아 수산기업가 협회장, 극동지역 GRDP의 12%는 어업

■ 극동지역 GRPD의 4%는 어업이 차지하고 있음^{a)}

- 지역경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GRDP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어업이란 직접적으로 수산물을 어획하는 것으로,
-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경제규모는 약 2,100억~2,110억 루블에 달하며, 이는 극동지역의 GRPD의 4%에 해당하는 수치임

■ 게르만 즈베레프(German Zverev) 러시아 수산기업가 협회장은 극동지역 GRPD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12%라고 주장함^{a)}

- 이는 ①수산물 생산, ②석유가공 및 어선 병커링, ③수송, 하역, 저장, ④조선 및 선박수리 등 어업 연관 산업을 배제했기 때문임

■ 첫째, 수산물 생산 활동은 어업활동에 포함되지 않고, 러시아 경제활동 유형 분류(OKVE D)에 따라 '생선 및 해산물의 식품 및 기타 제품 생산 활동'에 해당됨

- 수산기업가 협회장은 내륙에 위치한 공장, 해상 및 어선에 위치한 필렛 생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다른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함
- 예를 들어, 필렛 생산과 통조림 생산 활동을 어업활동에 포함시킨다면, 연간 2,200억~ 2,300억 루블을 GRDP에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될 경우 어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가 아닌 8%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둘째, 어업과 관련한 기타 서비스 분야, 연료 관련 분야 및 교통분야를 어업활동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 그는 석유가공활동 및 어선 병커링(연간 1,100억~1,200억 루블), 극동수역 내 운송선(20척)의 수산물 수송(연간 180억 ~ 200억 루블)을 어업활동의 일부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함

■ 셋째, 어획된 수산물을 육지로 운송한 후에는 항만 내 하역 및 저장(일반냉장·냉동), 운송 등 부가적인 활동을 필요로 함

- 극동지역 항만을 통해 매년 약 75만 톤 규모의 수산물이 하역되고 있으며, 도로 및 철도 등 내륙운송수단으로 환적되는 상황임

■ 넷째,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및 연해주 내 어선 건조 및 선박수리까지 어업 관련 산업으로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어업이 극동지역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12%가 될 것임

- 수산기업가 협회장은 극동조선소에서 총 15척의 계 잡이용 어선을 건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특히, 극동지역에서 어선을 건조할 경우, GRDP에 약 300억 루블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건조 후속처리에 속하는 선박수리업체에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임

■ 마지막으로 수산기업가 협회장은 조선업, 선박수리업, 교육업 등이 어업 연관 산업으로 포함된다면 극동지역 GRDP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4~1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realnyy_vklad_rybnoy_otrasli_v_ekonomiku_dalnego_vostoka_-_ne_menee_12.html (검색일: 2020년 7월 30일)

러 노바텍, 북극항로 이용 아시아 행 천연가스 운송에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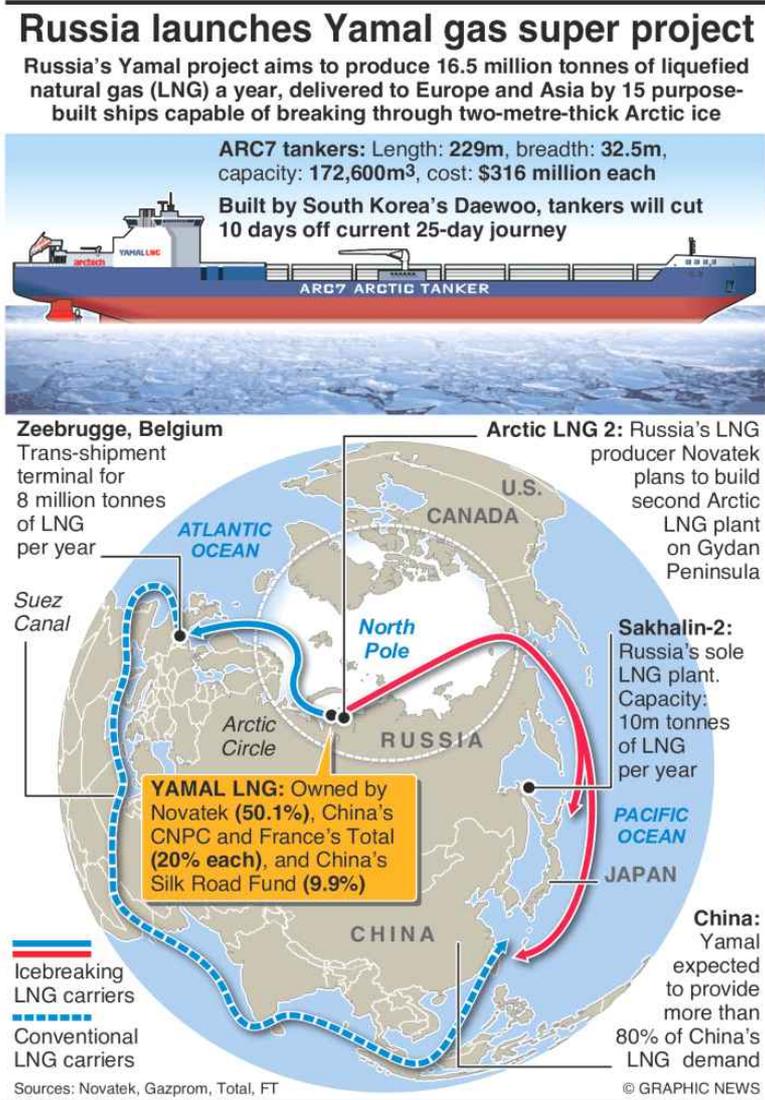
■ 러시아의 노바텍(Novatek)은 7월 22일 러시아 야말(Yamal) 반도에서 생산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처음으로 북극항로를 통해 일본에 운송함^{a)b)}

- 노바텍은 쇠빙 LNG운반선인 ‘블라디미르 루사노프(Vladimir Rusanov)’ 호가 북극항로를 따라 2주간 항해한 끝에 지난 7월 22일 일본의 요코하마항에 도착했다고 밝힘
- 노바텍은 이번 항해가 Arc7 등급의 쇠빙 LNG운반선이 일본 항구에 입항하여 화물하역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임을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일본으로의 LNG 수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앞서 레오니드 미켈슨(Leonid Mikhelson) 노바텍 회장도 일본을 세계의 주요 LNG 수출시장이자 노바텍의 중요한 마케팅 대상국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음

■ 노바텍은 북극항로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LNG 수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a)}

- 노바텍은 가스프롬(Gazprom)에 이어 러시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기업으로, 지난 2017년 ‘야말 LNG’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전통적인 유럽 시장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LNG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옴
- 특히 노바텍은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전통적인 항로보다 운송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를 활성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올해 6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야말 반도의 사베타(Savetta) 항에서 출발한 쇠빙 LNG운반선들이 북극항로를 거쳐 중국에 도착한 바 있음
- 그 중 ‘크리스토프 데 마제리(Christophe de Margerie)’ 호는 사상 처음으로 5월에 북극항로를 항해하여 기존 운송시간에서 1/3 이상 감소한 21일 만에 중국의 장쑤 항에 도착했음
- 노바텍은 또한 북극항로를 통한 LNG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해 캄차카 반도 동단의 베체빈스카야(Bechevinskaya)항에 LNG 환적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음. 연간 2,170만 톤의 LNG를 환적할 용량을 갖춘 신규 터미널은 2022년부터 가동될 예정임

그림. Arc7 등급 해빙LNG선과 노바텍의 야말 LNG 프로젝트



자료: <https://engtechmag.wordpress.com/2017/12/04/yamal-lng-set-to-deliver-gas-via-arctic-to-china/>

이준용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charmant9430@hufs.ac.kr)

참고자료

- <https://tass.ru/ekonomika/9042653> (검색일: 2020년 7월 27일)
- <https://rueconomics.ru/454721-severnyi-morskoi-put-obespechil-rossiiskomu-gazu-konkurentnye-pozicii-v-azii> (검색일: 2020년 7월 27일)
- <https://neftgaz.ru/news/transport-and-storage/622549-novatek-postavil-pervuyu-partiyu-spg-v-yaponiyu-po-severnomu-morskomu-puti/> (검색일: 2020년 7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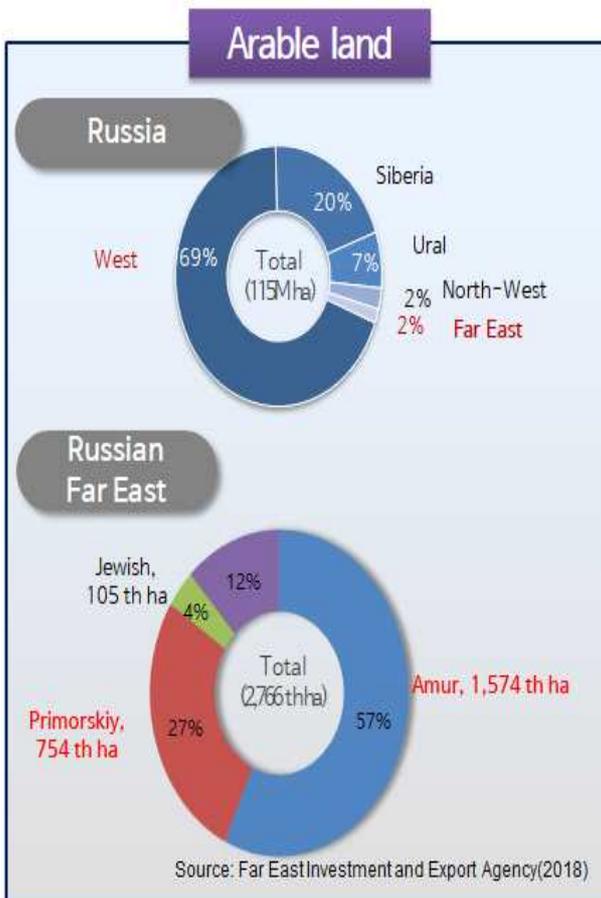
전문가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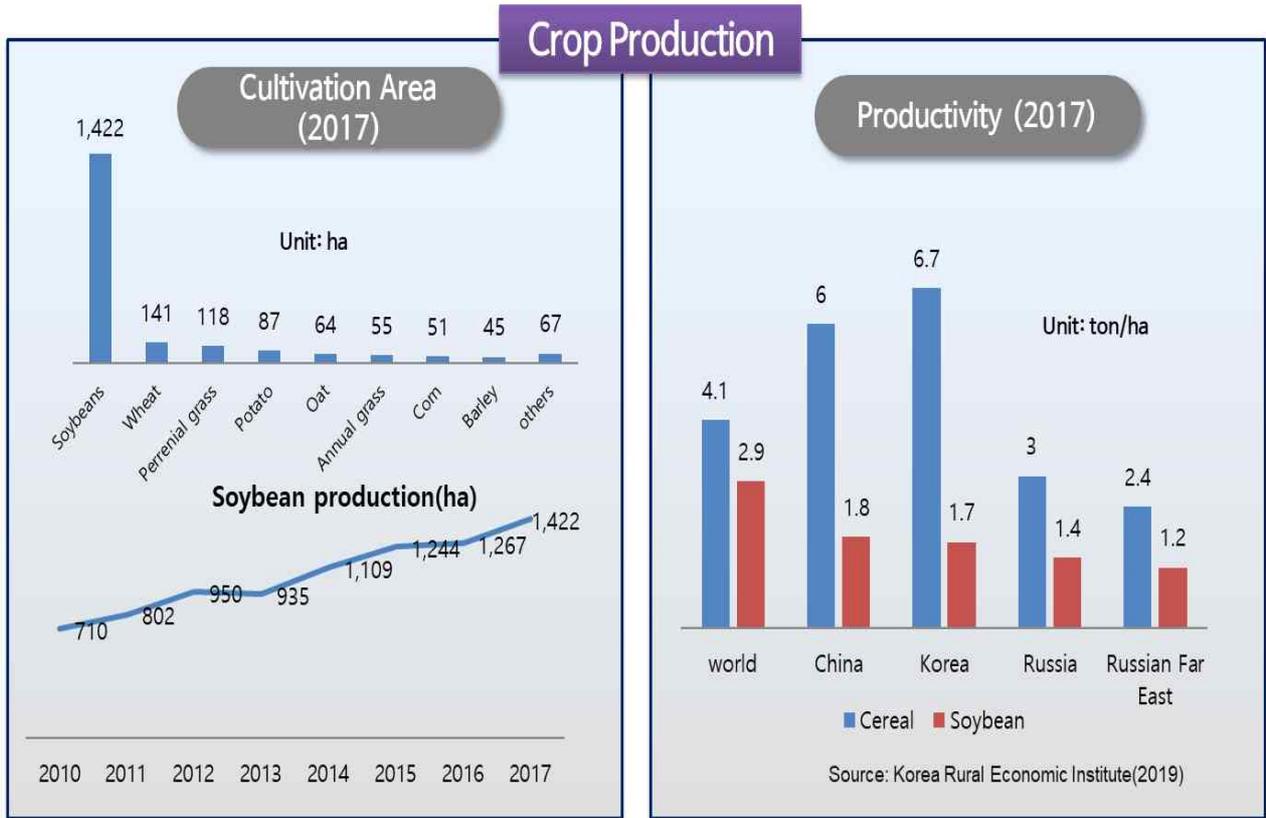
극동 러시아 농업여건과 우리 농업기업 진출 시사점

김종선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협력전략팀장)

극동 러시아 9개 지역의 경작 가능한 농지면적은 270만 ha(2017년 기준)이며, 이는 러시아 전체 농지면적의 2%에 미치지만 우리나라 농지면적(150만 ha)의 거의 2배에 가깝다. 극동 러시아 지역 중에서 아무르주(Amur)와 연해주(Primorskiy)가 가장 넓은 경작지를 보유한 주요 농업생산지역이다.



극동 러시아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은 대두(soybean)이다. 대두의 재배면적은 1,422 ha(2017년 기준)이며, 극동 러시아 전체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기준 대두의 재배면적이 710ha이었으니 거의 두 배 이상 재배면적이 늘어난 셈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 밀(wheat)이며, 재배면적은 141ha이다. 그러나 작물의 생산성(면적당 생산량)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전 세계 평균 대두 생산성은 ha당 2.9톤이지만, 극동 러시아 지역의 대두 생산성은 ha당 1.2톤이다. 특히 곡물류의 생산성은 한국의 경우 6.7톤/ha이지만, 극동 러시아 지역은 2.4톤/ha으로 매우 낮다.



Source: Korea-Russia Agricultural business Dialogue, Far East Investment and Export Agency(2018)

극동 러시아 지역의 농업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사일로와 같은 곡물저장 시설은 노후화되어 활용도가 낮으며, 포장 등을 위한 가공시설은 부족하며, 노후화 되어있다. 가공산업 또한 잼이나, 주스, 피클 등 단순 가공에 머물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곡물류의 농산물 85%가 철도(TSR)를 통해 항구로 운송되고 있다. 보스토치(Vostochny) 항구로 67%의 물량이 운송되며,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항구로는 21%의 물량이 운송되고 있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 지역에는 곡물터미널이 부족하여 물류 비용이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농업분야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극동 러시아 지역에 3개의 선도특별경제 구역(Advanced Special Economic Zone; ASEZ)을 선정하여 기반시설(전기, 가스, 물, 도로 등)과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구역에 총 25건의 투자자를 유치하였으며, 4,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였다.

ASEZ	Investors	Investments	Jobs
Primorskiy Region (Mikhaylovsky)	13	67.6 bn RUB	3,252
Sakhalin Region (Yuzhnaya)	8	9.7 bn RUB	633
Amur Region (Belogorsk)	4	4.5 bn RUB	563
Total	25	81.8 bn RUB	4,448

Source: Far East Investment and Export Agency (2018)

극동 러시아 지역은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물류 인프라 등이 열악하며, 북방지역의 기후여건상 농작물 재배기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선도특별경제구역(ASEZ)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지만 투자와 시장정보 등 관련 정보는 미흡하다.

	Helpful	Harmful
Internal	<p>Strength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화된 농업기술, 높은 생산성, 우수 농기자재 확보 가능 (시설원에 등) ▪ Non-GMO 및 청정지역 (러시아) ▪ 시장 잠재력이 높고 협력 수요 증가 ▪ 한국산 선호도가 높고, 한류문화에 관심 고조 	<p>Weakne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재배기간 제한적 (기후여건) ▪ 근거리 영농자재 조달처 부재 및 영농 전문인력 부족 ▪ 내륙 및 해상 물류 인프라 시설 미흡 ▪ 투자(시장)관련 정보 미흡
External	<p>Opport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및 투자 유치 정책 ▪ 식량부족국가(한, 중, 일)와 인접 ▪ 동북아(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농식품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처 확보 가능 	<p>Threa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제도 변경으로 예측 불가능성 존재 ▪ 인허가 처리기간 과다 소요, 통관 지연, 비효율적 행정처리 ▪ 기타국(중국, 일본)과의 개발 경쟁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농자재 산업에 대한 협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식품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와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극동러시아 지역의 시장잠재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기업의 진출이 유리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성과(2020. 6)에 의하면, 롯데상사, 사울사료 등 10개의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였으며, 이들 기업은 모두 2만 2,909ha의 농지에서 콩, 귀리, 옥수수 등 곡물류를 생산하여 국내에 2만 5,746톤을 반입하였다(2019년 말 기준). 19개국 66개 해외진출기업을 통한 농산물의 전체 국내 반입량 4만 4,162톤의 거의 절반이 극동 러시아 진출기업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극동러시아는 우리나라의 해외식량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극동 러시아 지역을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해외식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곡물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분야, 농자재 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요 통계



표. 2020년 4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1.94 (+1.0%)	6.95 (+4.0%)	18.89	+2.2%
북극해	2.45 (-7.2%)	5.82(-3.3%)	8.27	-4.4%
발트해	9.35(-1.8%)	13.36(+7.0%)	22.71	+3.3%
아조프-흑해	9.44(+14%)	12.97 (+5%)	22.41	+8.3%
카스피해	0.35 (+46.3%)	0.42 (+17.0%)	0.77	+28.7%
합계	33.52(%)	39.53(%)	73.05	+3.7%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pervyy_kvartal_vyros_na_2_4_do_207_08 mln_t.html (검색일: 2020년 6월 19일)

b)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yanvar-aprel_vyros_na_3_7_do_280_13 mln_tonn.html (검색일: 2020년 6월 19일)

표.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64383.60	76406.30	1759.00	1153.00	366142.70	77559.3
광물 제품	1399319.70	16961.30	45324.00	47020.80	1444644.10	63982.00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36125.60	15806.00	98.40	0.00	1336224.00	15806.00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321.80	54649.40	764.40	783.60	5086.10	55432.90
가족원료, 모피 제품	0.60	886.00	0.20	14.00	0.90	900.1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4801.70	7940.30	683.20	34.80	85484.90	7975.10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3254.00	57295.50	75.90	716.40	3329.90	58011.90
금속 및 금속 제품	12828.20	45278.90	57.90	1367.30	12886.00	46646.20
기계류	-3123.3	314021.60	1275.20	814.10	-1848.2	314835.70
기타	21132.40	29744.30	91938.70	240.90	113071.00	29985.10
합계	3,226,167.60	618989.60	141976.90	52,145	3366869.60	593,575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3월 기계류 수출누적규모는 96,207,100톤이며, 1~4월 수출누적규모는 94,358,900톤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 (검색일: 2020년 6월 19일)

표.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동어	158,461	210,165.5	2,462	3,749.9	181	201.8			158,641	210367.3	4991	3744,3
연어류	3,762	7,055.9	-	-	-	-	-	-	3,761	7,055.9		
넙치	579	2,548.7	-	-	-	-	-	-	579	2,548,7	-	-
가자미	7,899	1,902.2	-	-	-	-	-	-	2,077	1,902.2	-	-
가자미류	2,142	2,102.9	-	-	-	-	-	-	2,142	2,102.9	-	-
청어	2,880	1,798.4	-	-	81	63,6	-	-	2,961	1,862	-	-
대구	6,878	18,036	-	-	-	-	-	-	6,878	18,036	-	-
명태	123,708	132,860,9	-	-	80	115.0	-	-	123,788	132,975.9	-	-
농어	19	44.7	-	-	-	-	-	-	19	44.7	-	-
간, 곤이 (어란)	9,382	35,440.4	-	-	-	-	-	-	9,382	35,440.4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781	1253.7	-	-	-	-	-	-	781	1253.7	-	-
생선 필렛, 어육	6,965	20,293.9	89	383.5	14	30.6	-	-	6,979	20,293.9	89	383.5
건어, 훈제, 염장, 어분	-	1.1	116	630.8	-	1.5	-	-	-	2,6	116	630.8
갑각류	5,533	92,752,4	-	-	-	-	-	-	5,532	92,752,5	-	-

계류	4,694	86,498.6	-	-	-	-	-	-	4,694	86,498.5	-	-
조개류	629	1,080.4	-	-	-	-	-	-	629	1,080.4	-	-
가리비	488	796.1	-	-	-	-	-	-	488	796.1	-	-
오징어류, 문어류	141	284.3	87	444.8	-	-	-	-	141	284.3	87	444.8
수산 무척추 동물	778	2,389.1	-	-	-	-	-	-	778	2,389.1	-	-
성계류	160	421.1	-	-	-	-	-	-	160	421.1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 (검색일: 2020년 6월 19일)